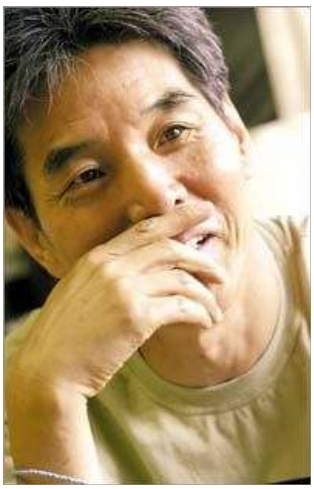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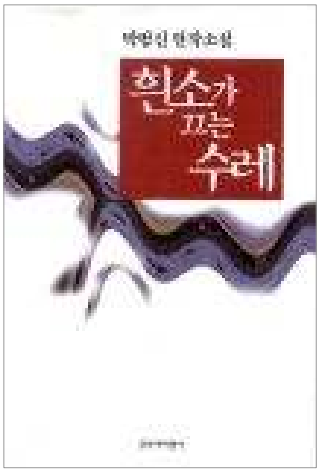
제1강 박범신 「바이칼 그 높고 깊은」 I

(1교시)



박범신



창작집 『흰소가 끄는 수레』 창작과 비평사, 1997

1. 작가연보

1948 충남 논산 생. 원광대 국문과 및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.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「여름의 잔해」 당선, 작가활동 시작. 대한민국문학상(1987), 원광문학상(1998), 김동리문학상(2001) 등 수상

장편소설: 죽음보다 깊은 잠(1979), 돌아눕는 혼(1980), 풀잎처럼 눕다(1980), 겨울강 하늬바람(1980), 숲은 잠들지 않는다(1985), 불의 나라(1987), 물의 나라(1988), 황야(1993), 수요일은 모차르트를 듣는다(1991), 틀(1993), 개뿔(1994), 외등(2001), 더러운 책상(2003) 등 다수

소설집: 토끼와 잠수함(1978), 덫(1979), 식구(1983), 연작소설 흉기(1990) 흰 소가 끄는 수레(1997) 등 다수

2. 줄거리

화자인 나는 바이칼 호수로 여행을 간다. 그곳에서 호수에 얽힌 전설과 실패한 청년장교의 봉기 이야기를 듣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내를 만나는 등의 경험을 한다.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생 딸 '하나'가 시위대에 섞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한다.

귀국한 나는 아내와 같이 대학건물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딸을 찾아간다. 그곳에서 딸을 만난 나는 돌아와 하나의 열정과 나의 삶,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반추해본다.

총 다섯 통의 편지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네 편은 바이칼에서,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귀국해서 딸을 만나고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쓴 형태의 단편소설이다.

3. 플롯구조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현재→과거 1, 2, 3, 4→현재

4. 시점
일인칭 관찰자 시점

5. 문체의 특징
미려하고 군더더기 없는, 감각이 뛰어난 문장

6. 묘사력
- 네 엄마는 주면서 미안해 딴 데 보고 나는 받으면서 미안해 딴 데 보는 금쪽같은 오백원 (170p)
- 머리 찔끈 빗어 묶고 나서는 아내 (206p)
- 사랑의 결단으로만 머리 빗어 묶거든 (206p)

7. 에피소드의 적절성
<바이칼>
바이칼의 지리적 특성: 수백 군데의 지류를 빨아들이는 호수, 그러나 물을 흘러내리는 출구는 단 하나 앙가라 강뿐이다. 앙가라 강은 흘러내려 길이 5천 킬로가 넘는 예니쎄이 강과 합류해 북극해에 이른다.

<바이칼의 전설>
바이칼이란 늙은 추장은 앙가라라는 딸을 데리고 산다. 앙가라는 젊은 무사 예니쎄이를 만나 사랑에 빠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다.

<즈나멘스끼 수도원>
- 쩨까브리스뜨 무장봉기: 1825 12월 농노제도에 반대해 <인간다운 삶의 조건>을 억압받는 민중에게 나누려 했던 당시 귀족장교들이 일으켰던 실패한 혁명.
장교들 121명이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짐. 그들을 사랑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귀족신분을 버리고 시베리아에 따라옴. 그들이 죽어 묻힌 장소가 즈나멘스끼 수도원이다.
= 톨스토이의 부활: 카츄샤
- 그들은 이상은 높고 열정은 앞섰으나 참된 힘의 결집에 대한 지혜로운 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. (175p)
- 어떤 혁명도 비단장갑으로는 이룰 수 없다. (스탈린)
- 인류 역사상 무장하지 않은 모든 혁명은 실패했다. (마키아벨리의 군주론)

<이광수의 「유정」>
- 이광수 선생이 쓴 러브스토리 「유정」을 혹 읽어보았는지 모르겠다. (168p)
- 어리고 순결한 처녀 '정임'을 향한 사랑의 격정과 숙명적인 금기체계 사이에서 온몸 찢기우다시피하고 시베리아를 횡단, 눈 덮인 바이칼로 찾아가던 '최석'의 애달픈 만년을 엄마와 나는 동시에 떠올리고 있었다. 눈 덮인 시베리아의 인정 없는 삼림지대로 한정 없이 헤매다가 기운이 진하는 곳에서 이 목숨 바치고 싶소…라던 그의 독백도. (178p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- 그의 친일을 용서해서가 하니라 그가 어쨌든 어둠의 역사 속을 고단하게 흘러 살면서도 문화적으로 척박했던 이 땅의 황무지를 갈아 뒤엎어 새로운 소설문학의 씨앗을 뿌린 선배작가이므로, 어떻게나 나는 약한 사람인고, 제 마음을 제가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인고. 이광수 선생은 쓰고 있다. 그가 만주를 유랑할 때 이 바이칼에 정말 들렀다면… 그는 어쩜 민족적 자존을 지켜낼 힘을 얻진 않았을까. (195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